

포스트 모던에 나타난 패러디 건축과 패션이미지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

동덕 여자 대학교 패션전문대학원 패션 디자인 박사 우세희*
동덕여자대학교 의상디자인과 교수 김혜경

- 목 차 -

- I. 서론
- II. 포스트 모던의 고찰
- III. 포스트 모던에 나타난 패러디 건축과 패션 이미지 분석
- VI. 결론

<요 약>

예술은 창작적이지만 되풀이 될 뿐이라는 가정 아래, 예술가의 독창성을 부정하여 그 가치는 ‘창작’과 ‘표절’이라는 이분법에서 진일보하여 넓은 창조방법론 위에서 인용 내지 차용, 패러디(Parody), 혼성모방, 아이러니, 유희성 등과 함께 대두 되고 있다. 특히 패러디 현상을 포스트모던의 문화 현상 속에서 특징적 현상으로 받아들임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일치되는 양상을 갖고 있다.

복식과 건축은 인간 행위의 소산으로 오랜 역사 동안 발전하여 왔다. 복식과 건축, 양자는 동일한 조형 예술의 형식 원리에 입각되어 있다는 공통성과 아울러 특히 인체와 그 마음을 담는 공간 형성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패러디 현상에 발견된 특징적 양상을 바탕으로 포스트모던 건축과 복식에 비교 분석하여 적용하는 과정을 거쳤고, 패러디 현상이 주는 디자인의 창작적 가치에 역점을 두고 다뤄보고자 하였다.

포스트모던 건축과 패션의 복고성은 포스트모던의 역사주의적 경향과 맞물려 설명되어질 수 있으며, 여기서 복고성은 과거의 이미지를 재현한다기보다는 과거성의 전달이라는 궁극적 목적에 따라 이미지만을 차용하여 새로운 표현성을 갖게 한다는 데에 패러디 화 과정이 적용되어진다는 것이다. 이렇듯 포스트모던의 특징과 패러디 기법이 적용되는 과정이 미묘하게 일치함을 포스트모던 건축과 패션 이미지 현상에 적용시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포스트모던 건축과 패션의 복고성은 포스트모던의 역사주의적 경향과 맞물려 설명되어질 수 있으며, 여기서 복고성은 과거의 이미지를 재현한다기보다는 과거성의 전달이라는 궁극적 목적에 따라 이미지만을 차용하여 새로운 표현성을 갖게 한다는 데에 패러디 화 과정이 적용되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예로 작품이 패러디되어 복식에서 표현되거나 포스트모던의 다양한 예술 양식이 패션에 패러디되는 경우, 또 과거의 대표적 복식 스타일이 변용되어 패러디되는 경우가 있다. 둘째, 기존 전통적 틀에서 벗어나 가변적이고 상대적임을 인정하게 개방적 태도를 보이는 포스트모던 건축과 패션의 다원성은 복식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포괄적으로 받아들인다. 즉 기존의 용도를 변용시킨다든지 대상물을 오브제로 복식에 패러디시켜 의외성과 아이러니를 지니게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셋째, 포스트모던의 기존의 이미지와 미래적 양식을 실험적으로 결합시키는 절충주의적 경향을 지닌다. 이것이 포스트모던 건축과 패션에 반영되어 이의 표현성을 나타내는 패러디 복식이나 상반된 이미지가 공존하는 패러디식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현대 사회에서 예술은 개성화 다양화 되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양상들은 수용 범위나 기존의 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서 그 원인에서 시작되었다. 불확실함은 예술을 비롯하여 패션, 건축 까지도 다각적인 현상으로 변화 하여 창조적 욕구를 추구하여 개성을 표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포스트 모던(Post-Modern)’이라는 문화현상으로 일괄되고 있다. 예술은 창작적이지만 되풀이 될 뿐이라는 가정 아래, 예술가의 독창성을 부정하여 그 가치는 ‘창작’과 ‘표절’이라는 이분법에서 진일보하여 넓은 창조방법론 위에서 인용 내지 차용, 패러디(Parody), 혼성모방, 아이러니, 유희성 등과 함께¹⁾ 대두 되고 있다. 특히 패러디는 포스트 모던의 핵심적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과거의 이미지를 재현하는 새로운 창조전력의 하나로 발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난 포스트 모던의 미적 범주에서의 패러디의 창작적 가치를 건축적 양식과 패션 이미지를 결부시켜 살펴보고, 예술적 측면으로 패러디의 창의적 가치를 포스트 모던의 각도로 패션 이미지를 고찰해 보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둔다.

이에 아래 사항들의 연구 목적으로 세분화 하였다

첫째, 포스트 모던의 개념을 고찰하고

둘째, 포스트 모던에서 나타난 패러디 개념을 파악하여

셋째, 포스트 모던의 나타난 패러디 건축과 패션 이미지를 분석하여 복식에서 창의적 가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패러디의 이론은 개념이 완전하게 체계화 되지 않아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결과 도출이 어렵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패러디는 광고에서부터, 미술, 음악, 영화, 건축에 이르기까지 기법 상 예술 현상 속에서 우연히 발견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패러디 이론이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른 장르와 연결시켜 설명해 나가는 것 또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러디 이론을 포스트 모던의 일반적 개념에서 다뤄보고 어떠한 공통적 특징이 있으며, 조형물인 건축과 패션을 포스트 모던 현상에 나타난 패러디 현상에 범위를 한정시켜 살펴본다.

II. 포스트 모던의 고찰

1. 포스트 모던의 개념

포스트 모던은 20세기 후반을 지배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용어이다.²⁾ 포스트 모던이란 용어는 1934년 마드리드에서 출간된 [스페인 및 라틴아메리카 시선집]에서 프레데리코 데 오니(frederico de Onis,1882~1932)가 포스트모데르니모스(postmo-deernisimo)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래 1942년 더들리 피츠(Dudley Fitts)가 그의 저서[현대 아메리커 시선집(Anthology of Contemporary Latin-American Poetry)]에서 이를 다시 응용하여 20세기 초의 모더니즘 자체 내에 이미 내재하고 있는 하나의 작은 반동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하였다.³⁾ 두 번째 동족어인 ‘포스트 모던’이라

1) 서성록(1992), 포스트모던 패러디와 차용된 표절. 월간미술 p. 116

2) 김동욱(1991), 포스트모더니즘과 예술, 청하 p. 13

3) 박정란(1997), 1990년대 복식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적 특성에 관한 연구 p.4

는 용어는 1950년대 초,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Arnold Toynbee)가 [역사에 대한 연구, A Study of history] 후반에서 밝힌바 서구 문명이 19세기 이후 돌연변이로 인식되는 전환기를 맞게 되었고, 우리의 시대를 사회적 불안, 세계 전쟁, 혁명의 시대로 보고 '포스트모던 시대'로 명명하기에 이른다.⁴⁾

'포스트'라는 접두사는 라틴어로 '다음의' 새로운'이란 뜻으로 특히 모던의 '앞'이 아니라 '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를 고려할 때, 몇 개의 모순된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들 중의 하나는 상투적인 것에 대한 '끊임 없는 투쟁', 아방가르드의 '연속적인 혁명'을 뜻한다. 그리고 은연중에 새로운 것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를 나타내기도 하며 가까운 과거의 재구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접어 있어 프랑스의 철학자 장 프랑스와 리오타르는 이 운동을 끊임 없는 세대 간의 투쟁으로 보고 있다.⁵⁾ 따라서 '포스트 모던'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새로운 위기의식을 전달하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함축적 의미를 띠고 있음이 명백하게 설명되어 지는 것이다.

포스트 모던의 발생은 두 차례의 역사적 대전(大戰)과 서구 세계의 정신적 위기감으로 인해 현대인의 현대 산물을 재평가함으로써 나타나는 불안감에서 기인되며, 이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의 목표를 인식함으로써 생겨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폭넓게 사용되는 포스트 모던은 1950년대 문화비평 분야에서, 1960년대 전위적인 무용과 연극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1970년대 이르러서는 건축 분야에서 신 건축의 등장과 함께 다원주의 양상의 기류를 타고 사회의 모든 영역 전반에 걸쳐 나타나게 된 것이다.⁶⁾ 하지만 포스트모던의 전통적이면서 지적인 기준들이 무너져버린 소비사회 문화 속에서 반성작용과 정화작용을 간과한 채 쉽사리 선풍적인 용어가 되고 말았다. 이는 새로운 낙관주의, 대중주의, 감각적이며 무책임한 문화를 위해 하나의 체계로 인식되었다⁷⁾

20세기 후반, 문화 영역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동시에 각각의 예에서 서로 다른 형태와 양상으로 변형되어 나타난다.⁸⁾ 즉, 효력을 상실 기존의 가치 체계에서 탈출구로서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양한 사상 문화적 현상을 지칭하려는 용어일 뿐 종전의 '-ism'의 개념처럼 어떤 특정 유평나 체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와 표현의 양상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영역 간에 동일한 위상에서의 논의는 오류를 범하는 행위일 것이다.

일반적 관점에서 포스트모던의 양식적 특성은 다원주의, 복고주의, 해체 전략, 텍스트 화, 계속성과 일관성의 부정, 대중문화와 고급문화 사이의 거리를 폐기, 창조의 근원성에 대한 경멸과 불신으로 말해지며, 그 중 창조전략은 다원주의라는 특징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재현(representation, 해체와 재구성), 패러디(Parody), 이중코드(Plural coding), 전도된 아방가르드 등으로 정리 할 수 있다.⁹⁾

예술 현상에 한하여 포스트모던의 특징적 현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포스트모던의 작가는 의미전달과정에서 상징적 기능을 표현하기 위해 과거의 양식 요소를 그대로 도입하거나 또는 과장, 축소, 왜곡 등의 변형을 통해 콜라주 양식으로 이를 전달하게 된다.

둘째, 상이한 여러 시대의 전통적 요소에서 참조한 모티브를 각색하여 적용시키는 역사주의적 경향과 앞선 시대의 새로운 양식을 실험적으로 결합하는 뎀피스 경향의 동시적 구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절충주의 양식으로 그 공통점¹⁰⁾은 고급 예술, 고상한 취향, 고전주의나 모더니즘 같은 안정된 범주에 대한 개념에 도전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셋째는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포스트모던의 특성상 예술 분야에서 나타나는 상징성과 전위성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4) 서성록 위의 책 pp. 174-177

5) Charles Jencks, 신수연 역(1992) 포스트모더니즘, 열화당 p. 11

6) 강남구(1996), 현대 패션에 나타난 팝 아트적인 요소와 포스트모더니즘적 요소에 관한연구, 청주대 석사학위 논문 p. 10

7) 정지현(1994),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한 패션의 양식 및 그 변화에 관한 연구 p.7

8) 서성록 위의 책 p. 5

9) 서성록 위의 책 p. 9

10) Charles Jencks 위의 책 p. 27

2. 포스트 모던에 나타난 패러디의 미학적 개념

패러디는 포스트 모던의 요체로 간주되어 왔다. 실제로 많은 예술가들은 패러디에 관심을 기울여 과거의 이미지들을 발굴해 내는 행위에 주력해왔다. 솔로몬 거더우(Solomon Godeau)의 표현처럼, 뒤상(Marcel Duchamp)의 모더니즘적 'ready-made' 이제 포스트모던의 'already-made'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예술을 패러디화 하는 것은 '향수' 때문이 아니라 현재의 표상들이 어떻게 과거로부터 유래되었으며, 지속성과 차이를 함께 지닌 창조적인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다. 패러디는 또한 예술적 독창성과 유일무이성 그리고 자본주의의 소유권, 재산권에 관한 개념들 같은 인본주의적 관점을 검증한다. 패러디(어떤 복제의 형식과 더불어)에 의해 희소성이 있고 유일하며,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진품성은 여지없이 의문시된다. 이것은 예술이 이제 그 자체의 의미나 가치를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패러디 작품은 '재현의 정치학¹¹⁾'을 전체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포스트모던 패러디에서 공인된 관점은 아니다. 지배적인 해석은 포스트 모던이 과거 형식들을 자유롭고, 장식적이며, 반역사적인 방식으로 인용할 수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각종 이미지들이 범람하는 현 사회의 가장 적절한 문화적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패러디를 '재현의 정치학'이라고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할 포스터(Hal Foster)에 따르면, 혼성모방(pastiche)¹²⁾은 신보수주의적 포스트모던의 '전형적 기호'가 되어왔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거의 맥락과 연속성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상호모순적인 '예술작품과 생산양식'을 허황되게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린다 허치언(Linda Hutcheon)은 포스트모던 패러디는 그것이 인용하는 과거 재현물의 맥락을 부정하지 않으며, 우리가 오늘날 불가피하게 과거와 유리되어 있음을 환기시키기 위해 아이러니를 사용할 뿐이라고 반박한다. 현재는 과거의 지속이며 다만 거기에는 역사가 벗어난 아이러니한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또한 포스트모던 패러디에는 모순적 형식들을 일거에 해결하지 못하지만, 그러한 모순을 밝히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모순은 재현의 힘과 한계를 동시에 일깨워 주는 작품 속에서 발견된다. 다시 말해 허치언은 역설적으로 자신이 반대하는 리얼리즘 관습에 의존하여 재현의 복합성과 그 밑에 깔린 정치성을 나타내는 것을 포스트모던 패러디라 말하면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재현의 정치학'으로 간주했던 것이다.¹³⁾

III. 포스트 모던에 나타난 패러디 건축과 패션 이미지 분석

1. 포스트 모던에 나타난 패러디 건축 이미지 분석

건축에서의 패러디는 현시대적 상황이 제시하는 특성에 의해 더욱 더 가시화 되고, 체계화 되어 가고 있다. 단순하게 원 텍스트에 대한 모방이나, 인용, 은유적인 의미를 넘어서 새로운 건축의 해석을 위하여 건축에서의 패러디 유형을 크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의 건축물의 전통양식을 다시금 읽어 내어 계승하고자 하는 경우인데 이는 전통에 대한 보수성이 강한 경향을 띤다. 둘째, 현대는 다양한 문화의 전시장이다. 그리고 그들 각 장르의 문화는 서서히 서로간의 벽을 허물고 대중문화라는 큰 맥락으로 상호 간섭을 하게 되는 경우이다. 셋째, 시대의 반영과 현실비판적인 패러디로서 패러디의 가장 중심이 되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원 텍스트를 작가의 심미적인 관점에 의해 모방으로만 아니라, 그 텍스

11) Linda Hutcheon, *The Politics of Postmodernism*, p.94

12) 프레데릭 제임슨은 그의 대표적인 논문 <포스트모더니즘과 소비사회>에서 포스트모던의 아이러니한 인용을 '혼성모방' 혹은 공허한 패러디'라 부른다.

13) 프레데릭 제임슨, 위외책 p. 147

트를 해석하고 재기호화 하여 의미를 함축하는 패러디적인 표현이라 하겠다.

1) 선행 양식을 이용한 패러디

BBRP(Banfi, Belgioioso, Peressutti, Rogers)에서 설계한 이 건물은 과거의 흔적을 전경화 시킨 가장 보편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주변의 건물들과는 물론 유럽의 일반적인 건물들과 달리 유난히 그 높이가 높다.<그림2>그리고 당시의 건물 양식과는 현저하게 다른 현대의 틀에 박힌 기능 위주의 건물들을 무시해버린 듯한 모습으로 서 있다. 이 건물은 창작성이 전혀 없고 형태적으로 무의미한 모방 작품이라는 비평을 받아왔지만 로저스는 토레 벨라스카(Torre Velasca)에 대한 의미적 해석을 역사적 환경에 대한 적용이며 현대 고층건물의 참신한 새로운 요소의 참작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작가는 현대의 도시발달이 너무 급진적이고 무분별하다는 의식 속에서 도시의 파수꾼이라는 새로운 상징성을 드러내기 위해 과거로의 회귀를 원 텍스트로 인식한 것이다. 패러디 의미부여과 선행된 이 같은 경우는 작가가 원 텍스트의 선정에 있어 보다 쉽게 할 수 있어 많은 패러디 작품들은 이러한 순서를 따르기도 한다. 이 패러디된 텍스트는 고전 방어용 탑에서 나타난 그러한 역사적 힘의 과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역사를 통한 주위환경의 동질성의 강화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즉 여기서 과거의 원 텍스트를<그림1> 그대로 모방 인용함으로써 도시의 감시자라는 존재로 독자들의 현시대에 대한 건축물들의 무질서한 난립과 형태의 획일성에 대한 주위환경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Castle, Fenis (원 텍스트)



<그림 2> Torre Velasca
BBPR, 1957-60, 밀라노

2) 혼성적 모방의 패러디

찰스 무어(Charles Moore)의 이탈리아 광장은 고전에 대한 계승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경우라 볼 수 있는데, 이 건물이 고전적 기둥 배열의 역사적 형태를 너무 낭비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한 설화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건물은 고전적인 요소와 더불어 지역성과 민족성을 원 텍스트로 하여 무어가 의도하고자 한 것은 지극히, 역사적, 현대적, 아메리카 적, 이탈리아적인 건축물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여기에 쓰여진 원 텍스트들의 요소를 보면 고대의 기둥들이 도리아식, 토스카식, 이오니아식, 고린도식, 혼합식까지 모두 쓰여지고 있으며, 고전의 아치의 사용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건물은 고전적인 요소들을 이탈리아의 문화적 배경으로써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자한 무어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는 것이다. 그리고 고전적인 원 텍스트 요소들 뿐 만 아니라 현대적인 요소들을 가미함으로써 이탈리아라는 시적 감각을 자극한다. 삭막한 도시의 가운데서 이탈리아인

들이 이 건물의 독자가 되는 주 이용자들은 건물 전체적인 형태에서나 사용된 요소들, 건물의 내부 구성구석에 작가가 의도적으로 장난처럼 사용한 표식들은 그들의 고향의 느낌을 인식한다.

이탈리아 광장에서 기둥과 분수들은 고전적 장식물임에도 불구하고 조립식이다. 즉 기둥과 분수가 수공예물이 아닌 것이다. 낭만적 개별성과 고딕건축의 수공이 모더니즘의 기계 도구화된 비 개성으로 대체된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뉴 올리온즈의 이태리인 집단지역이라는 공동적 아이덴티티를 널리 알린다는 맥락 속에서 이루어 졌다. 모더니즘의 과거를 향한 건축가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뚜렷하다.



<그림 3> The arch of Constantine
A.D.12 (원 텍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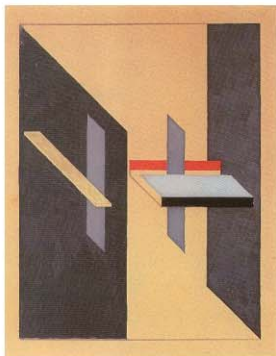


<그림 4> Piazza d'Italia, 찰스 무어
1997-78, 뉴 올리언스

3) 절충양식의 패러디

회화에서 건축적인 인용이 이루어진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행해져 왔던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용은 과거에는 단순한 의미로 건축의 장식적 차원으로만 이루어졌으며, 건축의 형태적인 표현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장식적 차원의 원 텍스트 인용은 독자들이 그 회화를 쉽게 인식할 수 있지만, 현대의 형태적인 표현에 혼합된 회화들의 요소는 쉽게 구분하기가 어렵다. 아이젠만의 (P. Eisenmann) 웨스너 센터<그림 6>에서도 볼 수 있듯이 회화의 시각적 표현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의 일차적인 분해가 이루어진 다음 작가의 구성 심리에 의해 2차적인 형태표현으로 이루어진다.

형태의 지나친 복잡성을 띄고 있는 아이젠만의 웨스너는 프랙탈 기하학과 회화의 큐비즘적, 구성주의적 요소인 재구성적 성향을 볼 수가 있으며, 또한 고전적 요소인 중세 무기창고의 모습이 혼합되어져 있다. 혼성적인 패러디 적 경향을 띄고 있는 이 건물은 독자들이 패러디 적 요소를 추출하기 위해 작가의 창작의도를 조금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구성주의 화가인 엘 리치츠키(eldritchpres)의 작품 <그림 5>를 보면 작가가 일차적인 분해를 통한 기하학의 첨가 형식으로 이루어진 형태적인 변화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eldritchpres
graphite(원 텍스트)



<그림 7> 오아이오 주립대 웨스너 예술센터
피터 아이젠만, 1983-90, 오아이오

2. 포스트 모던에 나타난 페러디 패션 이미지 분석

앞서 살펴본 건축에 나타난 페러디 이미지 분석을 통하여 포스트 모던 복식의 특징적 양상을 연구하여 역사주의적 경향과 다원주의적 경향, 절충주의적 경향으로 분류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포스트 모던 복식은 첫째, 재현불가능성(Unrepresentability)이라는 형식적 특징 속에서 과거의 재현이 이미지 차용에 의한 ‘과거성의 전달’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며, 그 표현성에 있어서는 모더니즘에서 결여된 상징성을 표출하고자 역사적 모티브로 ‘복고풍’이라는 특징적 현상을 창출하게 된다. 둘째, 포스트모던은 스스로가 어떠한 체계 없이 작용되어지므로 그 속에서 설명되어지는 다원주의는 포스트모던 복식에서 상실된 가치를 지닌 이미지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고 전통적 개념,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시각으로 조망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셋째, 감각적이고 낯설음을 연출하는 포스트모던 복식의 의도는 그 최대효과를 위해 기존의 양식에서 모티브를 참조하여 각색하고 변용시키며, 미래시대의 새로운 실험적으로 결합시키는 절충적 양상을 띠게 된다.

한편 페러디 현상은 포스트모던 복식의 이러한 해석을 유용하고 타당성 있게 적용시키고 있다. 페러디화 과정에서 그 시작은 페러디스트의 소재가 된다. 하지만 그 소재는 단순한 재현을 위해서가 아니라 페러디스트의 의도와 목적의식의 맥락 속에서 이미지만이 차용되어 새로운 표현성을 갖게 되며, 각색 적용되는 과정에서 원래 양식과는 거리감을 두게 된다. 또한 페러디는 여러 가지 다양하고 혼합된 기법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포스트모던 복식이 갖고자 하는 감각적이고 극적인 연출은 페러디 복식에 유용하게 효과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른 포스트모던 복식과 페러디 현상과의 예들을 통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선행 양식을 이용한 페러디

패션에서 가장 보편화된 페러디 현상으로 예술작품의 형태, 색채, 등을 인용하여 복식에 페러디 시킨 경우, 과거의 복식 스타일이 페러디 되어 현대에서 재해석 되어 페러디 되는 현상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7, 8, 9, 10> 예술 작품인 비너스를 페러디한 서랍 달린 비너스를 패션에 다시 페러디 하여 부분 이용한 것이다. <그림 9>는 서랍 부분을 디테일로 응용하여 유머스럽고 현대 적으로 표현 <그림10>은 서랍 부분으로 가슴 부위를 강조하여 에로틱하게 표현 하였다.

<그림 11>은 과거 복식의 로맨틱 스타일인 레그 오브 머튼 소매(Leg of Moutton Sleeve)를 비비안 웨스트우드 (VIVIENNE WESTWOOD)가 현대적 감각으로 남성적이고 파워풀하게 재현 하였다.



<그림 7> 밀로의 비너스



<그림 8> 달리의 서랍 달린 비너스



<그림 9> Thierry Mugler



<그림 10> 작가 미상



<그림 11> VIVIENNE WESTWOOD S/S 2004

2) 텍스트 변용을 통한 다원주의 경향의 패러디

기존의 용도가 전이되어 패러디된 복식은 포괄적인 수용성을 지니고 그 내용에 중점을 둔다. 즉 기능적, 역할의 전위에 의도하는 바가 있다. 사물이 패션디자인에 오브제로 패러디 된 경우는 사회 풍자적 비판적 시각과 ,아이러니한 효과의 낯설음을 연출 한다.

<그림 13>에서는 그 원래의 용도를 상실해 탑이 극도로 짧게 변형 되고, 스커트에 소매를 트리밍으로 사용하여 모호함을 주고 있으며 , <그림 14>는 넥타이가 원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장식으로 과장된 칼라(Collar)와 어우러져 의외의 아이러니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5>는 대중사회에서 보편화된 잡지를 드레스로 표현함으로써 복식이 광고적 의미로 전위되어 패러디 되고 있다. 근엄하기만 했던 태극기는 2002년 월드컵으로 인해 패션에 패러디됨으로써 서구 문화의 코드를 변형, 해체시켜 제 3의 통합적인 새로운 ‘태극기 패션’이란 코드를 탄생하여 화합적인 의미로 재탄생 하였다.<그림 16, 16-1>



<그림 13>2004 S/S HELMUT LANG



<그림 14> 2003 F/W VIKTOR AND ROLF



<그림 15>2001 S/S MOSCHINO



<그림 16>2002 태극기 패션



<그림 16-1> 가수 미나의 태극기 패션

3) 절충양식의 패러디 복식

포스트 모던의 절충주의적 경향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역사주의적 경향이 공존하면서 설명되어지는 것으로 조화를 이루는 질서보다는 단절과 해체 혼돈을 따른다. 여러 시대의 양식을 혼영 함으로써 이미지를 재구성하고 병치, 전환 시켜 복합적으로 재탄생 된다.



<그림 17> 1999 S/S MOSCHINO



<그림 18> 2004 F/W VIKTOR AND ROLF



<그림 19> 2003 F/W 이영희



<그림 20> 1991 F/W vivienne westwood

<그림 17>은 핸드백에 생각지 못한 오브제를 트리밍으로 사용하여 부조화와 동시에 사물의 이미지를 전달시키고 있다. <그림 18>은 전혀 어울리지 않은 사물을 병치함으로서 의의성과 복식의 이미지를 부각 시켜 보여준다. <그림 19> 디자이너 이영희의 작품으로 한복의 한국적인 느낌을 서양 복식과 접목 하였고 고전과 현대를 절충시켜 각각의 이미지를 부각 시켰다. <그림 20>는 과거의 여성 복식을 대표 하는 코르셋을 현대복식에 배치하고 남성의 대표적인 재킷과 코드 피이스(Code Piece)를 배치함으로써 성의 혼란 성을 조롱하고 있다.

VI. 결론

오늘날 현대 사회는 믿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문화와 양식들이 혼란스럽게 상호 관계를 맺는, 즉 문화적 다원주의를 형성하였다. 다른 측 매체를 사용하는 예술들과 동시에 관계를 맺는 것은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의 틀과 현실 세계 사이의 거리감을 창출하는데 도움을 준다.¹⁴⁾

현대 예술의 가치는 독창성과 모방으로 양분된 이분법적 사고에서 논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술성을 갖게 하는 예술가의 의도와 표현력 그리고 목적에서 평가되어진다.

따라서 패러디는 기성 이미지를 '비평적 거리감'과 '차이를 둔 반복'으로 새롭게 창조하며, 앞서 설명한 이미지에 타당성을 부여하고 창조의 개념에 유연성 있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패러디는 가변적이고 상대적 개념으로 양식의 다원성을 전제로 하는 포스트모던 예술 현상 속에서 독창과 창조라는 개념에 위배되는 양식으로의 오명을 벗게 된다. 오히려 포스트모던의 특징적이고 핵심적인 기법으로 그 개념을 구체화 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면서 패러디는 창조적 개념을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포스트 모던의 복고주의적 경향, 다원주의적 경향, 해체주의적 양식, 대중주의적 경향, 권위붕괴의 현상 등은 예술양식에 반영되는데 이는 과거 양식을 도입하여 상징성을 전달한다든지, 모든 것에 각각의 의미적 가치를 인정하고 개방적 태도로 받아들여 절충된 양식을 창조하거나 원래에 텍스트의 변용을 가해 새롭게 자신을 반영시키며, 대중과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한 표현성을 탐색하는 등 여러 형태로 구체화시켜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패러디 화 과정에서도 적용 될 수 있는데 패러디는 그 소재를 이미 존재 해 있는 기성의 이미지, 원래의 텍스트에서 선택하게 되고 다양한 형태로 적용 시킨다.

패러디의 소재는 패러디화 과정속에서 해체 과정, 축소 왜곡, 첨가 중복, 삭제, 변형되어 패러디스트의 새로운 표현성을 반영하게 되고 따라서 원래의 텍스트와 '차이를 둔 모방'이 된다.

이렇듯 포스트 모던의 특징과 패러디 기법이 적용되는 과정이 미묘하게 일치함을 포스트 모던을 건축과 패션 이미지 현상에 적용시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포스트모던 건축과 패션의 복고성은 포스트모던의 역사주의적 경향과 맞물려 설명되어질 수 있으며, 여기서 복고성은 과거의 이미지를 재현한다기보다는 과거성의 전달이라는 궁극적 목적에 따라 이미지만을 차용하여 새로운 표현성을 갖게 한다는 데에 패러디화 과정이 적용되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예로 예술 작품이 패러디되어 복식에서 표현되거나 포스트모던의 다양한 예술 양식이 패션에 패러디되는 경우, 또 과거의 대표적 복식 스타일이 변용되어 패러디되는 경우가 있다. 둘째 기존의 전통적 틀에서 벗어나 가변적이고 상대적임을 인정하게 개방적 태도를 보이는 포스트모던 건축과 패션의 다원성은 복식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포괄적으로 받아들인다. 즉 기존의 용도를 변용시킨다든지 대상물을 오브제로 복식에 패러디시켜 의의성과 아이러니를 지니게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셋째, 포스트모던의 기존의 이미지와 미래적 양식을 실험적으로 결합시키는 절충주의적 경향을 지닌다. 이것이 포스트모던 건축과 패션에 반영되어 이의 표현성을 나타내는 패러디 복식이나 상반된 이미지가 공존하는 패러디식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14) Anthony C. Antoniadis(1994), [건축시학] 김경준 역, 도서출판 국제, p. 256

이에 본 연구는 먼저 패러디 현상을 포스트모던의 문화 현상 속에서 특징적 현상으로 받아들임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일치되는 양상을 찾고자 하였다. 그 중 발견된 특징적 양상을 바탕으로 포스트모던 건축과 복식을 비교 분석하여 적용하는 과정을 거쳤고, 패러디 현상이 주는 디자인의 창작적 가치에 역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모던 건축과 패션 이미지가 추구하는 공통점과 의도를 해석하였고, 나아가 건축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예술과도 접목시켜 보다 창조적인 패러디를 연구 범위로 제안 한다.

(접수: 2005년 9월 2일)

[참고 문헌]

- 서성록(1992),포스트 모던 패러디와 차용된 표절, 월간미술
김동욱(1991),포스트 모더니즘과 예술, 청하
박정란(1997), 1990년대 복식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Charles Jencks, 신수연 역(1992) 포스트모더니즘, 열화당
강남구(1996), 현대 패션에 나타난 팝 아트적인 요소와 포스트모더니즘적 요소에 관한연구, 청주대 석사학위 논문
김민정(1991),포스트 모더니즘 디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정지현(1994),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한 패션의 양식 및 그 변화에 관한 연구
Linda Hutcheon, The Ploitics of Postmodernism, p.94
Fredric Jameson, Postmorden or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New Left Left Review
우경국(1997) 패러디와 패러디적 현상, 건축인
John Summerson,(1985) 심재연, 윤재희 역, 건축과 고전언어, 세진사
Anthony C. Antoniadis(1994), [건축시학] 김정준 역, 도서출판 국제

A Study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Parody Architecture and Fashion Image Shown in Post-modernism

Dept, Fashion Design. Ph.D. course, Dongduck Women's Univ, **Wu sehee**
Prof. Dept, Fashion Design, Dongduck Women's Univ, **Kim Hye Kyung**

Under the assumption that arts are creative but only repeated, the originality of artists is negated. And their value has made a greater progress from the dichotomy of 'creation' and 'plagiarism' and comes to a forefront together with citation and borrowing, parody, pastiche, irony, playfulness and the like. Especially, it is understood that the phenomenon of parody is accepted as the characteristics phenomenon in the post-modern cultural phenomenon, in which they have the aspect that they becomes consistent with each.

Fashion and architecture have developed as the product of human behavior over the long history. Both fashion and architecture have the commonality that they are based on the identical form principle of fine arts and especially has something in common in that they serves to form the space containing the human body and mind. Therefore, this study made a comparative analysis of post-modern architecture and fashio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found in the phenomenon of parody and carried out the process of their application. And it attempted to deal with them with an emphasis on the creative value of design giving the phenomenon of parody.

The retro nature of post-modern architecture and fashion can be explained in conjunction with the tendency of historicism. Here, the retro nature is that the process of parodying is applied for post-modern architecture and fashion to borrow only the image and have new expressiveness according to the ultimate purpose of delivering pastness rather than reproduce the past image.

Like this, the characteristics of post-modernism and the parody technique subtly is consistent. When they were applied to the image phenomenon of both post-modern architecture and fashion, the following findings were obtained:

First, the retro nature of post-modern architecture and fashion can be explained in conjunction with the tendency of historicism. Here, the retro nature is that the process of parodying is applied for post-modern architecture and fashion to borrow only the image and have new expressiveness according to the ultimate purpose of delivering pastness rather than reproduce the past image. Accordingly, to take an illustration, there are the case that the work is expressed in fashion through its parody, or the case that the diverse artistic styles are parodied in fashion, or the case that past typical fashion style is transformed and parodied.

Second, the plurality of post-modern architecture and fashion showing the open-minded attitude of getting away from the existing traditional framework and admitting variability and relativity comprehensively accommodates the object applicable to fashion design. That is, it is the example that both post-modern architecture and fashion transformed the existing use and had unexpectedness and irony by parodying the object to fashion.

Third, both post-modern architecture and fashion take the eclectic tendency experimentally combining the existing post-modern image and future style.

They are reflected in post-modern architecture and fashion and come to appear in a form of parody which parody fashion representing its expressiveness and its opposed image exists.

KeyWord: Post Modern, Parody